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내가 부처' 믿으면 불성이 '나' 이끌어

17면에서 계속

지금 여기있는 것은 '나'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를 돕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 되죠. 그리고 천도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천도는 했는데 왜 또 하라고 그러냐?'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차원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 따라 길에서 만나도 금방 천도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인과성이나 유전성, 혹은 세균성, 업보성 이런 인연으로 매여 있을때는 그게 한고비 한고비 이렇게 풀려 나가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묵살하고 한번을 해도 '천도가 아주 제대로 됐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삼천 년의 업이

생명체들도 다 그냥 혼돈을 해서 순식간에 변해 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가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고 그대로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 우리들의 법입니다. 부처와 중생도 이 백지장 하나 사이입니다. '깨우쳐야지, 깨우치지 못했으니가 중생이지' 또는, '내가 깨우쳐야 될 텐데 중생이라 깨우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계단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성이 곧 자부처니까 자부처도 자기한테 있으며 중생이라는 육체도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육체 하고 정신 하고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둘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진리가 지금 고정됨이 없이 흘러갈나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러

**“물질과 정신 둘로 보지 말고
남 아프게 하지말며
자기 탓으로 돌리고 관하세요”**

있다 해도 삼천년전을 지금 현재의 참나로, 현재도 그쪽 참나로 하나로 묶어주면 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모두가 한생각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내가 요즘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 부처님 법을 가르친다고 사성제나 육바라미니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거기에 매달려서 스스로 속박을 해서 그냥 밀치고 들어갈 수가 없이 돼요. 이거는 누구 가르침에 의해서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쳐서 깨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가 우물에 빠졌다면 우물에 빠진 대로 자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누가 건져주고 거들어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자성의 근본 자리의 구멍이 우물과 같아서 우물 안에 본래 빠져있으니 우물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본인에게 달려 있다 이 소려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보는 것도 심안으로 보고, 듣는 것도 심안으로 듣고, 가고 오는 것도 심안으로 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제각기 불성이 있어서 여려한 줄 알고,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알고, 방법을 들이고 내도 손색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런 차원이 왜야 강에서 사는 고가들도 건질 수 있고, 그것의 무명을 벗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작은 미생물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부처님 모습과 둘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가는 것이 그대로 조상들과 무명 영가들을 다 건질 수 있는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것 뿐만은 아니죠. 사람 마음의 차원은 단계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면 부처라고 하고, 생각을 했으면 법신이라고 하고 몸을 움직여줬다 하면 보현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 삼 단계가 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더럽고 깨끗한 것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선하고 악한 것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구요.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죽을 병이라고 진단이 내려라고 '음, 내 참나의 줄이 있잖아.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네가 심부름을 해서 건강하게 해야지' 이러면 통신이 될텐데, 마음이 이미 죽어서 '아이고, 죽었구나! 인제 얼마 살지 못하겠지.' 하고 아주 마음이 흐트러져서 탁 풀어져 버리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내 몸속에 든 생명체들도 확 풀려지죠. 작용해 주는

야아 됩니다. 진리를 한번 보세요.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대로예요. 알면 그대로 부처예요. 지금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깨우쳐서 별성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가는 사람과 둘째는 깨우치지 못했어도 주인공의 줄을 믿고 열심히 잡고 가는 사람, 셋째는 그것도 못 쥐고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도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구경물이 들어오는 것도 그 자리, 새 물이 들어오는 것도 그 자리, 파도가 이는 것도 그 자리, 바람이 자서 물이 자는 것도 그 자리, 죽는 것도 그 자리, 사는 것도 그 자리, 밥먹는 것도 그 자리, 똥누는 것도 그 자리, 잠자는 것도 그 자리. 매사가 그러하네 달리 '내가 잤다' 할 게 없죠? 매일 자는 거니까. 그리고 본 것도 '내가 봤다' 할 수가 없죠? 듣는 것도 '내가 들었다' 할 수가 없죠? 가정에서 항상 만나는 사람도 매일 만나기 때문에 '만났다' 할 수가 없



그림 · 최주현

“아무도 대신해주지 못해... 제 뿌리 믿어야” '자기줄' 철저히 쥐고 가면 '공도리' 알게 돼

조. 자연적으로 그냥 넘어가죠. 내가 했다. 내가 만났다. 내가 갔다. 내가 살고 있다 이런 게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할 때마다 생각들을 하고 넘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하고 그냥 반가워하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둘이 아니니까 만나야겠다.' 이라고 따져서 만납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이지. 자동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팔만대 잠경을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법을 해 주시고 역대 조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데도 스스로가 항상 중생이라고 무시하고 팔자 문명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하시는 뜻을 넘을 줄 몰라요.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었더니 가슴이 웃었다고 그랬죠. 혹시 '왜 웃는 것이 꽃이냐?'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꽃도, 사람의 얼굴도, 웃는 것도 마음을 돌아내면 다 꽃이 되죠.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형성되고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또는 형제가 되고 이렇게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미생물조차 자기 몸 아닌 게 없고 자기 아들 아닌 게 없고 자기 생명 아닌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거듭거름 바뀌면서 여기까지 올라 온 이치를 아신다면 부처님께서 돌아다니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신 그 뜻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내가 미생물이었다가 또 짐승도 되고 또 인간으로서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고등동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두에게 다 자부처가 있습니다. 자부처를 알아야 일체제물의 그 마음을 한마음으로써 다

싸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줄을 아주 철저히 쥐고 가는 사람은, 진리가 돌아가는 이치를 꼭 공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진짜 한다면 위로는 조상이요, 아래로는 자녀들이 그만큼 그 한도량 한마음 속에 들어서 모두가 출중하게 되죠. 그 인연으로 인해서 아래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근기를 받는다는 얘기도. 예를 들어서 이 공부를 할 때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로 보지 말라.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 내가 좀 섭섭하더라도 남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부부기간도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한테 관하리' 이렇게 일러준 말을 한번이라도 잘 관한다면 그 사람이 백 년을 살면서 기록으로 믿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전에 내가 산으로 다닐 때 얘기하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산소열에서 옷을 빨아입고 앉았더니 웃고고 몸이 고 막 얼어요. 그런데 멀리 초가집에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축지법을 써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부처님의 정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몸을 감춘다거나, 혹은 몸을 붕 뜨게 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따위는 부처님께서 한 데로 떨어지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로켓트가 올라가는 세상에 축지법이 무슨 소용이라. 마음은 체가 없으니 내가 가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그 집에 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온기가 생겨서 몸을 녹이고 나왔죠. 이 법이 이렇게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가 자신을 찾으면 바로 통신이 직결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극락에 가든 안가든, 또 도리천으로 행하는 일이 되든 안되든,

이거는 전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갖지 마세요. 어떤게 닥치더라도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굴 믿겠어요?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있나, 대신 아파주는 사람이 있나, 대신 죽어주나, 대신 먹여주나, 대신 배불려주나, 똥 잠을 자주나, 똥을 뉘주나. 한가지도 대신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지 누굴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생각 사이에 우주 삼라대천 세계를 참나에 돌고 있고 특히 사람의 경우는 도는 횡수가 말로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자신'을 찾으면 원성이 되는 겁니다. 내마음 하나에 코드가 촘촘히 끼여져 있어요. 그건 천차만별의 법으

로 생각하는 겁니다. 심할 때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서로가 미워하면서도 이상한건 또 옆에 없으면 찾아서라도 싸워야 하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또 대대 무승 인연으로 이런 부부인연을 맺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주는 것이 지 끌어 잡아당기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라고 하죠. 자기 다 없었던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다가 없어요! 모두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하든 못하든 자기 탓으로 돌려**

**“마음을 가난하게 갖지마세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속의 생명체들도 풀려지죠”**

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한 코드에서 필요함대로 나뉘게 되니 아픈면 의사가 되어주고 죽으면 지장보살이 되어주고 가난할 때는 관세음보살로 나뉘게 되죠. 이렇듯이 각각의 소인들이 한코드에 다 연결이 돼있으니 내가 진실로 믿고 끌어다 쓰면 된다 이 소립니다. 몸이 아픈면 '주인공,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가난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 살게 하는 것도 너 아니!' 하고 관하게 되면 그게 바로 코드에 연결하는 거거든요. 자기 앞에 닥치는 모든 일을 용돈에 따라 관해주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듯 모두 나가서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원자로 다시 집중을 하는 걸요. 이 허공에도 생명들이 꼭 차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을 거지 생명이 없다면 무슨 에너지가 있었습니까? 지장보살님이 그러셨다. '중생을 다 제도하는 날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하고요. 그리고는 문고리를 잡고서 아무리 끝나기를 기다려도 끝이 나지 않더라고요. 먼 저 간 사람은 또 돌아서 오고 금방 뒷 떨어진 사람은 계속 올라오고 이러니 뒤 끝날 사이가 없죠. 그걸 보고서 지장보살님이 '끝없는 진리가 이것이로구나. 우리 사는 진리가 바로 들고 도는 이것이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어떻게니까? 진리는 끝없이 들고 나며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들고 난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습디다. 또 영원하죠. 어떤 분들은 비구니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해? 하시겠지만 모습이야 비구 비구니가 있지만 그 불성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때 어떤 살 먹은 비구니는 다섯 살 먹은 사미한테도 절을 하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그 시대에 맞는 방편이었을 뿐 시대가 변하면 방편도 바뀌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높은 신분이 높은 왕족에서 출가한 비구니들이었기에 아만이 높아서 그런 방편을 안 쓸 수가 없었던거예요. 작은 미물이라도 불성이야 다 있지만 각자 살아온 마음 차원에 따라 모습만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는 모습이나 말에 걸려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부끼리 괴롭히며 살아오

스님,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26년 이 되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괴롭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 행동에 대해 의심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도 온통

농으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묶어놔 보세요. 더 굶고 나갈려고 열 쪼쪼. 그냥 확 풀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나가고 들어 오고 할텐데 말이지. 그러니 따뜻하게 그냥 다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짐작하고 상상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가 똑같이 그러란 말이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은 '이것도 다 내 탓이야. 주인공, 너만이 저 사람 그렇게 않게 해!' 하고 관하시고, 자유를 주고, 또 부인도 마찬가지로 관하세요. 주인공이 둘이 아닌 까닭에 어더를 가서 뭘 행해도 그냥 주인공에서 알아야고 주인공에서 자동적으로 다루어 줘요. 다스려 준단 말이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말로 행동으로 온통 불잡들려고만 하니 불잡아지나오, 그게. 세상살이 모든 게 우연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금은 금방에 모이고 남는 남. 마저 전에 모이고 무쇠는 무쇠전에 모여요. 그거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누구의 잘못이 더하고 덜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하, 이것도 내 탓이고 저것도 내 탓이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무엇이 결림이 있고 무엇이 상대 있었냐?' 하고 그냥 거기다 놓으라고 지금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미운 것도 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믿지 않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되돌려서 인력을 하세요. 그래야만 그 인력 들어간 대로 다시 나오죠.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요. 부디 화목하게 잘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세생생을 돌게 되니까요. 열심히 관하시면서 노력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필요한 이치를 얘기했으니까 그대로만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 다음에 돌아가셔도 9대 손주까지도 다 보살될 수 있습니다. 9대고 해서 그대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이 마세요. 하나가 전제니까요.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자연적으로 터득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지금 겪고있는 것은 우리 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렇고 저러고 항상 빠지고 돌아가거든요. 정신계가 빠지고 돌아가니까 참선을 해도 '이게 뭐고? 이 몸통이 뭐고?' 하고 몸통이 화두를 한단 말이예요. 몸통이 나로 인해서, 바로 내 자식으로 인해서 형성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 시대를 그저 자꾸 넘어갈 수밖에 없죠. 결림이 없이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뭐고?' 한다면 이전 몇천년 전에 '이게 뭐고?' 한 것과 지금 '이게 뭐고?' 한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발전도 없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줄 잡고 올라가는 거 있죠. 아무리 천아만야 높은데라도 그 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줄이 바로 우리의 자성불 그 줄이예요. 그리고 오늘은 천도에 대해 얘기 했는데 천도는 극한 정성으로 특히 이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밝아지면 한 참나에 다 밝아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려하게 사는 생활 속에서 한 생각 사이에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게 하십시오.

삶은 결코 꿈가 아니라는 이 통쾌한 역설!

삶의 모든 고통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발판임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大行 스님의 육성 법어집

A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33
737-8881(편집), 737-0696(영업), 팩스 (02)737-0696